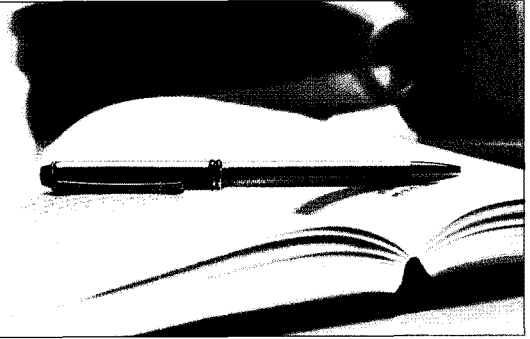


고전 속에 살아있는 닭 이야기



우리의 고전을 살펴보니 우리 민족은 닭과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서기 64년에 경주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설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숲길을 가는데 흰 닭이 울고 황금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 탈해왕에게 보고하여 왕이 달려가 그 궤 속을 들여다보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알지였으며 그 후 왕실에 양자로 들어가 성장한 후 탈해왕이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때 닭이 울은 숲을 '계림'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연유로 신라를 계림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과 가야의 김수로왕도 알에서 태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나 중국에서 고구려를 계국(鷄國)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닭은 예로부터 다섯 가지 덕(五德)을 고루 갖춘 선비의 표상으로 높임을 받았는데, 첫째 머리에 얹은 붉은 뿔은 선비가 벼슬을 하여 관(冠)을 쓴 것과 같아 문(文)의 상징이요, 둘째 날카로운 머느리 발톱은 싸움의 무기이니 무(武)의 상징이고, 셋째 적을 만나면 죽도록 싸우는 기백이 있어 용(勇)의 상징이며, 넷째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고 모두를 불러 고루 먹게 하는 인자(仁)이요, 다섯째 새 날, 새 시간, 새 세상이 밝았음을 알려주니 믿음(信)을 저버리지 않는 덕성스러운 동물로 오덕(五德)을 갖추었다고 추앙했다.

조선시대에는 학문과 벼슬에 뜻이 있는 사람은 서재에 닭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유행하여 고려시대 민화에 닭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닭이 입신출세(立身出世)와 부귀공명(富貴功名)을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사이에도 계란과 관련된 설화가 있다. 사명대사는 서산대사보다 스물세살이나 아래로 스승과 제자사이였으나 도술을 겨루곤 했다.

하루는 사명대사가 붓집에서 바늘이 가득 담긴 그릇을 꺼내 주문을 외우니 바



최 희 철 연구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늘이 먹음직한 국수로 변했다. 사명대사는 국수를 맛있게 먹으면서 서산대사에게도 먹기를 청했다. 이 국수를 먹던 서산대사는 이에 질세라 입에서 바늘을 뺀어 놓았다. 사명대사는 다시 계란을 꺼내더니 한 줄로 곧게 쌓아 올렸다. 그러나 서산대사는 한술 더 떠서 공중에서부터 밑으로 계란을 쌓아 내려왔다. 결국 사명대사는 도술 겨루기를 포기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서거정(徐居正)이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했다. 친구인 주인이 술상을 차려내왔는데, 안주를 차린 것이 고기는 없고 소채(蔬菜)뿐이라 주인이 먼저 사죄하며 이렇게 말했다.

“집이 가난한데다 시장이 멀어서 안주라고는 자실만한 것이 없이 오직 소채뿐이니 부끄러울 뿐일세.”

그런데 문득 뜰을 보니 여러 마리의 닭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다 말고 김선비가 헛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는 친구를 위해 천금(千金)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인데 내 말을 잡아서 안주로 먹어야겠군!”

느닷없는 이 말에 주인인 친구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하기를,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가?”

그러자 김선비는 이렇게 말했다.

“그야 너의 닭을 빌려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러하여 차계기환(借鷄騎還)이라는 사자성이 유래했으며 손님을 박대할 때 주인을 비꼬는

말로 쓰이고 있다.

서울잡학사전에서 삼계탕은 어린 닭에 인삼과 마늘, 대추, 찹쌀 등을 넣고 물을 부어 푹 고아서 만든 음식으로 계삼탕(鷄蔘湯)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연계(軟鷄: 병아리보다 조금 큰 닭)를 백숙으로 고아서 ‘영계백숙’이라 했는데 지금은 삼계탕이라고 명칭이 굳어졌다.

계삼탕은 식욕을 돋우고 보양을 하기 위해 닭에다 인삼을 넣고 흠씬 고아 먹는 것이라고 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따르면 오골계는 풍을 예방하고 여성의 산후조리에 좋으며 늑막염과 노이로제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고급 삼계탕으로 여겼다고 한다. 삼계탕 이외에 닭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으로는 임자수탕(젓국탕)과 초계탕, 닭개장 등을 들 수 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면 있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불려서 나누어 먹는 닭의 나눔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

복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도 함께 모여서 삼계탕을 끓여 여럿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 우리의 풍습이었다.

구제역으로 축산인들은 연초부터 노심초사하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런 와중에도 치킨산업은 월드컵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제 다른 축종과 이웃과 옆을 돌아보아 같이 나누며 이로 인해서 같이 웃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기 때문이다.